

# 조선시대 문인·예술가들 활동무대...가사문학 발원지

**무등산을**  
**세계의 국립공원으로**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캠페인

## ⑪ 그윽한 문화의 향기 '정자'

정철 '성산별곡'·송순 '면앙정가'  
당대 대문호 가사문학 16편 탄생  
식영정·면앙정 등 '예향의 뿌리'

무등산은 주옥같은 가사문학의 탄생지다. 송강 정철이 '성산별곡'을, 송순이 '면앙정가' 등을 이곳에서 지었다. 국문학사에 높이 평가되고 있는 대문호의 가사문학 16편이 무등산 자락에서 나왔다. 이들의 활동공간이 된 식영정, 송강정, 면앙정, 독수정, 소쇄원, 환벽당 등 정자가 무등산 자락에 있다. 국립공원 무등산 내 대표 정자를 소개한다.

◇외송정(臥松亭)=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나무 위의 정자다. 석곡면장을 지낸 최달석이 일제시대 때 원호계곡 상류의 풍암정 옆 노송 위에 만들었다. 광주읍지를 살펴보면 누워있는 소나무 아래 세워서 외송정이라 했다는 기록이 있다.

◇독수정(獨守亭)=고려 공민왕 때 충신 전신민이 무등산 동북쪽 기슭인 담양군 남면에 세운 정자다. 고려 말 병부상서를 지낸 전신민은 정몽주가 선죽교에서 살해되는 것을 본 뒤 벼슬을 버리고 내려와 독수정을 짓고 지냈다. 이후 조선 태조 이성계가 수차례 불렀으나 두 나라를 섬기지 않겠다고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독수정은 이백의 시 '백이 속제가 누구인가 홀로 서산에서 절개를 지키며 굶주렸다네(夷齊是何人 獨守西山餓)'라는 글귀에서 따온 것이다.

◇소쇄원(瀟灑園)=자연과 인공을 조화시킨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정원이다. 양산보(1503~1557)는 스승인 조광조가 유배되자 세상의 뜻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와 소쇄원을 지었다. 소쇄원은 양산보의 호 소쇄원에서 따온 것이다. 당시 송강 정철과 제봉 고경명, 고봉 기대승 등이 소쇄원을 찾아 시를 남겼다고 한다. 소쇄원 맨 위쪽 단은 주인이 거처하던 사랑채와 서재를 겸한 제월당이고, 아래쪽 시냇가의 정자는 광풍각이다. 소쇄원은 '절대로 남에게 넘기지 말라'는 양산보의 유언에 따라 후손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

◇면앙정(旣仰亭)=조선 중종때 송순(1493~1583)이 관직을 그만두고 내려와 지은 정자다. 가운데에는 한 칸짜리 방이 있고, 사방이 마무리져서 어느 쪽에서나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후면 경관은 절경으로 꼽힌다. '방을 굽어보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이 없다'는 의미를 지닌 면앙은 '땀자'에 나오는 말이다.

◇환벽당(環碧堂)=푸름을 사방에 두르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 환벽당은 광주호 상류의 충효동 언덕 위에 있는 정자로, 나주목사를 지낸 김윤제(1501~1572)가 지었다. 식영정과 250m 거리를 두고 마주하고 있다. 건물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의 목조와가다. 김윤제는 관직을 떠난 뒤 고향으로 돌아와 환벽당을 짓고 후학 양성에 힘을 썼으며, 대표 제자로 정철과 김성원 등이 있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 김덕령과 김덕보 형제는 김윤제의 종손이다.

◇식영정(息影亭)=환벽당, 송강정과 함께 정송강 유역이라고 불린다. 식영정은 원래 16세기 중반 서하당 김성원이 스승이자 장자인 석전 임억령을 위해 지은 정자라고 한다. 식영정이라는 이름은 임억령이 지었는데 '그림자가 쉬고 있는 정자'라는 뜻이다. 당시 사람들은 임억령, 김성원, 고경명, 정철 등을 '식영정 사선(四仙)'이라 불렀는데, 이들이 성산의 경치 좋은 20곳을 택해 20수씩 모두 80수의 식영정이십영(息影亭二十詠)을 지은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이 식영정이십영은 후에 정철의 성산별곡의 밑바탕이 됐다. 가운데에 방을 배치하는 일반 정자와 달리 한쪽 귀퉁이에 방을 두고, 앞면과 옆면을 마무리 간 것이 특징이다.

◇송강정(松江亭)=정철(1536~1593)이 조정에서 물러나 4년동안 조용히 지내던 정자로, 송강정이라는 이름은 정철의 호인 송강에서 비롯됐다. 죽곡정이라고도 부른다. 정철은 이곳에 머물면서 식영정을 완쾌하며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비롯해 많은 시가와 가사를 지었다.

◇취가정(醉歌亭)=충장공 김덕령이 출생한 곳으로, 환벽당 남쪽 언덕 위에 있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 김덕령의 혼을 위로하고 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13일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 위치한 식영정이 푸른 소나무를 배경으로 수수하면서도 도도한 지태를 뽐내고 있다. 식영정은 '그림자가 쉬고 있는 정자'라는 뜻으로, 환벽당, 송강정과 함께 정송강유역으로 불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890년(고종 27년) 후손 김만식 등이 세웠다. 취가정이라는 이름은 권필(1569~1612)의 꿈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김덕령이 나타나 읊었다는 취시가(醉時歌)란 시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괴정(三傀亭)=1900년 남평문씨 문병일이 부친 문유식의 뜻을 받들어 건립했다. 삼괴정은 부친의 호를 따서 지은 것이다. 삼괴란 미립(未立·뜻을 세우지 못한), 미현친(未顯親·아버지의 명에 높이지 못한), 미교자(未教子·자식을 뜻대로 가르치지 못한)의 세 가지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명옥헌(鳴玉軒)="명옥(鳴玉)"은 옥구슬 소리라는 뜻으로, 정자의 서쪽 계곡에서 흐르는 개울물 소리가 옥구슬이 부딪치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 중기 오희도(1583~1623)의 넷을 기리기 위해 그의 아들 오이정(1574~1615)이 지었으며, 주변에 백일홍을 심었다. 명옥헌은 요즘도 해마다 백일홍이 만발하는 장관을 연출한다. /박진표기자hucky@kwangju.co.kr

### 독자투고 보내주세요

'나와 무등산'은 무등산과 얽힌 추억이나 인연 등을 소개하는 열린 마당입니다. 200자 원고지 7매 분량의 글과 관련 사진을 받습니다. 보내실 곳은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무등산 시리즈' 담당자 앞. e-메일 mudeung@kwangju.co.kr.

### 나와 무등산 김용국 정광고 교사

## 고향 닮은 무등산 보며 향수병 치유



김용국씨가 지난 2012년 12월 함박눈이 쏟아지는 무등산 바람재에 올라 중봉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내가 무등산을 하나의 고유명사로 각인하기 시작했을 때는 30여 년 전인 사춘기 시절이다. 장성 삼성중학교에 다녔던 나는 2학년 2학기가 시작될 무렵, 아버지의 강권을 이기지 못하고 광주 동성중학교로 전학 왔다. 도시로 나온 촌놈이 으레 그렇듯, 나는 고향 삼성의 태청산과 너른 들관, 시냇가, 미루나무 그리고 친구들을 그리워 했다. 향수병에 걸려 시를 거리던 어느 날 우연히 바라본 무등산의 모습이 고향집 언덕 뒤 보리밭에서 바라보았던 태청산을 꼭 빼닮아 있었다. 반가웠다. 이때부터 무등산은 고향을 떠오르게 하는 의미 있는 고유명사로 각인됐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은 오르리라 다짐하던 차에 고교 소풍지로 무등산 바람재를 올랐다. 교련복을 입고 오른 바람재에서 맞은 바람은 맑고도 시원했다. 태청산 정상에서 마을 형들과 함께 칩을 한입 가득 베어 물고 맛았던 유년의 바람 맛이 그대로 배어 있었다. 사회인으로 첫발을 내딛으며 외롭고 힘든 객지생활을 할 때면 으레 무등산은 태청

산과 함께 떠오르곤 했다. 20대 후반, 수년의 객지생활을 접고 다시 광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옛 모습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무등산을 보고서야 평정심과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 작년 말이었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매제도 그 소식을 들었는지 이를 기념해 무등산 겨울 산행을 제안했다. 등산을 자랑할 만한 짝꿍은 못됐지만 들뜬 마음에 승낙하고 말았다. 눈이 많이 내렸던지라 단단히 무장을 하고 중심사 입구에서부터 올랐다. 바람재에 다다르기도 전에 매제 앞에 저질 체력의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다. 무등산은 중년이 돼 다시 찾은 나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숨은 가볍고 장판지는 당겼다. 하지만, 한발 내디딜 때마다 설곡의 비경이 연출됐고, 이에 힘입어 나는 바람재를 거쳐 중봉에 이르렀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호흡을 가다듬어 서석대와 입석대의 눈꽃 향연을 만날 수 있었다. 국립공원으로 승격할 무등산의 설경은 그 어느 해보다 품위있고 고상했다.

### 무등산 갤러리 박태후 작 '무등산의 자연' (2010)

한지에 먹과 채색(180cm x 60cm)

“많은 화가들이 무등산을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다보면 그린다. 하지만 무등산은 보는 방향에 따라 다양한 형상으로 다가온다. 산이 주는 느낌도 달라진다. 화순에서 광주로 넘어오면서 바라본 해가질 무렵 무등산의 이미지와 함께 개인적인 소견을 한지에 담았다. 군청색만큼 무등산의 자연을 질푸르게 표현할 수 있는 색도 없는 것 같다.”



우리 하는 남자

# YONAMJA

Fusion Family Restaurant

STEAK / PASTA / PIZZA / BEER

5월 중순 광주 유·스퀘어점

## OPEN

홀직원 | 주방직원 | 파티타이머  
즐겁게 함께할 가족모집

E-mail : rsh3366@hanmail.net

광주 유·스퀘어점 062) 673-7979